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김현정
제목	배움을 통한 성장이 곧 성공		
<p>요즘 저는 확 트인 고속도로를 따라 거침없이 달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정류장도 아닌 곳에 혼자 내린 기분입니다. 누가 내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버스가 고장 난 것도, 도로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갑갑하고 멀미가 날 것 같아서 스스로 내렸습니다.</p> <p>하늘을 올려다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니 살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차를 탈지, 도로를 벗어나 숲길로 걸어갈지 둘러보는 참입니다.</p> <p>20대 중반에 공무원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임 시절에 “과연 내가 조직 생활에 잘 맞는 사람인가...”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처음인 데다 모든 것이 낯선 신입이었으니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 계신 친척 어른들의 제안으로 별 고민 없이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자의로 공직에 들어왔지만, 당시 20대의 저는 제가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이고, 어떤 일에 설레고, 어떤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장 잘 맞는 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 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여기가 아닌 것 같지만 딱히 싫지는 않았으며 어디가 맞는 곳인지도 알 수 없었기에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거꾸로 저에게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 방향 없는 열심을 내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p> <p>보통 2년여에 한 번 꼴로 인사이드가 있는데, 5년 전쯤 새로 발령을 받은 곳에서 제게 맡겨진 업무가 업무시간은 물론이고 주말, 휴일도 없이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출근, 퇴근이라는 개념 없이 일하다 보니 성격은 점점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없었으며, 몸은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3년여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하며 지칠 대로 지친 제게 친한 동료가 대학원 진학을 제안했습니다. 취미강좌도 아닌 학위과정을 제안하는 동료에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일이 이렇게 많은데 대학원까지 어떻게 다녀...!’ 라고 했을 텐</p>			

데 그 당시 저는 일 외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림을 취미로 하고 있었고, 상담심리나 미술치료 쪽에 관심이 있던 터라 그쪽 분야로 전공을 정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상담심리 분야에서 이름난 한양사이버대학원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19년도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프라인 세미나 참석차 학교에 가면 되니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데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학부 전공과 전혀 달라 모든 수업이 생소했습니다. 석사 1년 차에는 선수과목까지 이수하느라 매 학기 들어야 할 수업 량이 상당했고 과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량은 더 늘었고 대학원 수업에 과제, 발표, 팀 프로젝트까지 하면서도 제가 전혀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요즘 좋은 일 있냐 얼굴이 좋아졌다” 라는 인사를 들을 정도였고, 대학원 첫 학기 받은 성적은 전 과목 A+, 평점은 4.5점 만점이었습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써야 할 정도로 바쁜 일과가 이어졌지만 즐거웠습니다. 관심이 있던 분야라 수업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면서까지 완벽히 이해하려고 애썼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볼 만큼 몰입해서 공부했습니다.

덩달아 맡은 업무도 즐기게 되었고 더 많은 일을 더 여유 있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2년여 석사과정을 마치고 올 2월에 졸업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그 동안의 업무 공적을 인정받아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은 전 과목 A+, 졸업 평점 4.5점으로 최우수상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전 과목 A+를 받겠 다는 생각도, 업무로 표창을 받겠다는 야심 찬 생각도 없었습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고 일한 제게 행운처럼 주어진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지난 5년은 3년여의 긴 터널과 2년여의 막힘 없는 질주를 경험한 시기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성장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괴로움의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에 대한 태도가 옳은 지, 등에 대해 고민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덕분에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저를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공부를 사랑했고, 그것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을 사랑했으며, 제

주변 사람들, 가족, 반려묘, 마침내는 저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보다 조금 일찍 승진하고 주목받는 보직을 받는 것에 집중했던, 그 저 밖으로만 향하던 저의 시선을 저에 게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바쁜 직장인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목적이 없는 배움. 부와 명예,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한 나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배움을 말합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과 회사, 넓게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유는 물리적인 시간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 준 지난 2년여의 대학원 생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제게 이 길을 소개해준 저의 사랑하는 동료, 더없이 훌륭한 지식을 전해주시고 인생 선배로서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신 대학원 교수님들께도 감사합니다.

한때 저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지구평화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비치는 공정하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세상이 어딘가 잘 못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세상을 바꿀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올바르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려는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제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잘 자란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듯, 제가 머지않아 공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 변화는 저에게 지금과 같은 안락함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의미 있는 일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용기를 내야겠지요. 배움의 결론은 행동의 변화,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저의 길을 잘 닦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맡은 크고 작은 역할들, 겪어온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빈틈없이 자리 잡아 제가 내디딜 다음 발걸음을 받쳐줄 디딤판이 될 것을 믿습니다.

"We are not here to win, We are here to grow. 우리는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앞이 훤히 보이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이제 제가 걸을 만한 작은 오솔길이라도 발견하는 행운을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새로이 길을 낼 용기를 내야겠지요. 천천히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처럼 조금 늦은 배움과 모험을 시작하려는 모든 분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기를 적어봅니다.